

# 돌파구 모색한 1년... 新포교 '마중물' 될까

## 2015 신행 · 포교 결산

침체 탈피위한 노력 돋보여  
맞춤형 포교콘텐츠 개발 주력  
자발적 재가 공부모임 '눈길'  
군 포교 취약지역 지원성파도

올해는 최근 몇 년 간 이어온 '신행 · 포교 침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돋보였다. 종단 및 승가에선 새로운 포교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가자들의 자발적인 신행 · 수행활동이 두드러졌다. '조심으로 돌아가자'는 훈풍을 타고 초기불교 공부모임이 대거 출현했고, 그간 활동이 저조했던 직장 · 직능인 재가신도단체들도 제2의 도약을 꿈꾸며 기지개를 폈다. 이에 따라 2015 신행 · 포교 활동이 2016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포교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국불교의 포교가 구시대적인 방법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따라 불교계는 다방면의 새로운 시도를 꾀했다. 요즘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힙합 음악'을 도입하는 한편, 법당에서 들을 수 있던 법문을 토크콘서트 · 북콘서트에서 펼쳐놓으며 대중에게 다가갔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는 지난 11월 성철 스님 법어로 램을 노래하는 '법 창작곡 대회'를 개최했

다. 청(소)년들은 성철 스님 법어를 편사한 지경가사에 자신만의 리듬을 입혀 힙합 공연을 선보였다. 이는 불교가 청(소)년들의 문화로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스님들이 토크콘서트 · 북콘서트 등으로 대중 앞에 나서며 '법문은 법회에서 듣는다'는 기존 형식을 탈피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힐링 · 명상 열풍이 불며 이와 관련한 스님들의 대중강연 및 책 출간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법륜 스님, 혜민 스님, 정목 스님, 일감 스님 등은 토크, 책, 음악 등이 어우러진 콘서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대중적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이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지난 6·7월 시행한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은 불교문화로만 여겼던 '사찰음식'을 포교콘텐츠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점심 급식을 사찰음식으로 제공하고, 어린이 뮤지컬 '그거 알아야? 음식은 생명'을 공연함으로써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전파했다. 이와 더불어 선재 스님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문화 개선' 강연을 함께 진행하며 호평을 이끌었다.

### 재가계에 불어온 '공부 열풍'

올해는 특히 재가자들 사이에서 '초기불교' 공부 열기가 확산됐다. 지난 10월 출범한 '정법빠리사(대표 정은음)'는 기도 · 참선을 일상화하고, 심신계를 실천하는 등 수행중심 초기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는 재가모임이다. 정법빠리사는 매주 수행법회 및 격월마다 '108선지식 구도순례'



①조계종 포교원은 '법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 되다'를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②재가모임 '정법빠리사'는 수행중심 초기불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0월 18일 창립했다. ③수원남부경찰서불자회는 10월 27일 경승위원회 창설과 더불어 공식 출범했다. ④11월 16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교구본사와 군법당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①조계종 포교원은 '법 창작곡 대회-성철 스님, 래퍼 되다'를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②재가모임 '정법빠리사'는 수행중심 초기불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0월 18일 창립했다. ③수원남부경찰서불자회는 10월 27일 경승위원회 창설과 더불어 공식 출범했다. ④11월 16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교구본사와 군법당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대중강좌'란 형식을 통해 재가자들의 학구열에 부응했다. 2600년 불교역사를 3차로 나눠 스인도, 티벳 및 남방불교의 역대 조사 △2차 중국 불교와 선종의 법맥 이해 △한국불교의 종지종풍 근원 파악 등을 공부한다. 현재 2차 강좌가 진행 중이다.

창원 신불사(주지 혜안) 명상수행센터도 지난 9~12월 초기불교명상법에 집중하는 '혜안 스님의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을 실시했다. 20여 명의 재가불자가 참여한 이

번 프로그램은 초기불교 명상법인 호흡명상, 견기명상, 자애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 직장 · 직능 신도단체 '재부흥' 도모

과거 활발했던 직장 · 직능 신도단체들이 최근 바쁜 업무, 잦은 이직 등으로 결속력이 저하되며 와해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 가운데서도 몇몇 신도단체들이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지도 법사를 선임하며 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조승섭, 이하 경불연)는 지난 11월 창립법회

를 열고, 제2의 도약을 준비했다. 경불연은 지난 2010년 창립했으나 회원들의 연대 및 활동 저조로 2013년 해산한 바 있다. 이에 경불연은 조승섭 신임 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단을 꾸리는 한편,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 등 7인을 지도법사로 위촉하며 구심점을 결성했다.

그러나 가하면 올해 막 출범한 신도단체들도 눈에 띄었다. 수원남부경찰서불자회(회장 유진행)는 지난 10월 경승위원회 창설과 더불어 공식 출범했다. 수원남부서는 개소

한지 24년이 됐지만 불자회나 경승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처음이다. 특히 전국서 유일하게 경승위원회가 부재했던 곳이다. 이에 수원남부서 경승위원장 송탁 스님(수원 아리따움동원장)은 "재가불자회가 침체된 시기에 스님들이 중심이 아닌 재가자들이 발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원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를 전한 바 있다.

### 군 포교 체계화 · 내실화 주력

올해는 군종교구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군종교구는 그동안 주로 실시한 간식지원, 군법당 불사 등 1차적인 군 포교서 한 발 나아가 GOP · GP 근무자를 위한 북카페 조성, 학백 전달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지난 11월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교구본사와 군법당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군 포교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교구본사는 각 지역 상급부대 및 예비부대 군법당에 불사, 법회, 위문품, 장병 위문 등을 지원하고, 각 군법당은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참석, 근막대 동원 등 협조하며 체계적인 협력을 펼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군종교구는 최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지원에 주력했다. 가장 최근인 공동경비구역(JSA) 내 법당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에 착공하는 'JSA 법당'은 안보견학 교육장 옆에 25평 규모 고려시대 전통 목조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대웅전, 종각 등을 건설해 법당 외형을 갖추고, 남북평화기원 행사를 개최하는 등 불교 홍보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게 교구측 설명이다. 박아름 기자

# "우리 가족은 모두 '부처님 제자'"

BTN, 12월 13일 진관사서 가족수계법회

"부처님 품안에서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에게는 희망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건강을, 온 가족이 보람과 기쁨 그리고 복덕이 충만한 가족 신앙공동체의 모범을 이루겠습니다."

서울 삼각산 진관사에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한 법원이 울려 퍼졌다.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서 수계를 받고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BTN 불교TV(대표 구본일, 이하 BTN)는 12월 13일 삼각산 진관사에서 '제1회 불자가족수계법회-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 법회는 BTN 회장이자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성우 스님을 계사로 진관사 신도 150여 가족이 참석했다.



BTN 불교TV는 12월 13일 삼각산 진관사에서 '제1회 불자가족수계법회-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를 개최했다.

성우 스님 계사로 150 가족 수계  
조부모-부모-자녀로 신행 이어져  
개국 20년 가족 신행 캠페인 일환

법회는 수계 의식 전에 참석자 모두가 함께 하는 '나를 깨우는 108배'로 시작해 수계 의식으로 차분히 이어졌고, 서원계와 가족수계발원문을 다함께 낭독하고 한 가족 당 1가족수계를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계사로 나선 성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엄마, 아빠,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이 모두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면 사와의 가장 근원이 되는 가정의 화목해진다. 이런 밝은 가정으로 인해 사회가 밝아져서 그야말로 광명국이 가득한 본래 마음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본래 밝고 밝은 마음자리 터득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성인"이라고 가족신행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오늘 참가 가족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진실한 제자로 살겠다는 서원을 했다"면서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귀의처가 될 것이고 갑갑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없애서 헤쳐 나가게 하는 지혜의 등

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8대째 진관사를 다녔던 신도 가족 중에 할머니, 아들, 손자 3대가 수계를 받았고, 또 토티플레이 동참으로 진관사를 찾아온 다둥이 가족 자녀 4명이 수계를 받기도 했다.

가족수계법회에 동참한 조혜인 학생은 "학교 공부 때문에 사찰에 못 나오다가 가족수계법회가 있어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약속하기 위해 수계 받으러 왔다"면서 "엄마랑 같이 와서 더욱 뜻깊다"고 동참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가족수계법회는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이 올해 발표한 4대 비전 중 하나인 '바른 신행문화 홍보와 확산'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알아지고 있는 가족 신행공동체 의식을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진관사에서 열린 '가족수계법회-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는 오는 12월 25일 오후 3시 50분, 27일 오후 1시 50분 BTN을 통해 방영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사찰서 자기계발 · 호연지기 해볼까

겨울방학 주목할 만한 사찰 청소년 캠프

백담사- 자기주도 학습 유도  
골굴사- 선무도 · 영어 동시예

겨울방학이 눈앞에 다가왔다. 방학은 학생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자 학업을 증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다. 사찰에서도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자기 계발을 돕는 특색 있는 캠프를 운영한다.

강원도 백담사에서는 1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꿈과 끼를 펼쳐라- 자기주도적 학습력 개발 과정 겨울 방학 특별 장기과정'을 진행한다.

백담사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개발 캠프는 매일 호흡법, 단전호흡, 절명상, 견기명상 등 집중 명상을 통해 뇌과학에 기반한 주도적 학습능력 배가시키는 것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다. 또 3주 동안 자기주도 학습, 효과적 시간 관리법 등 특강과 전문 학습 코치의 1:1 자기 주도적 학습 코칭(주1회) · 청소년 비전 워크숍 등을 비롯해 겨울 산행 · 동해 일출 맞이 · 텀플스테이 체험 등 사찰문화 체험도 함께 이뤄진다.

경주 골굴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12월 27일부터 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골굴사 청소년 화랑캠프'는 선무도 수련과 호신술, 승마, 국궁 등으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한편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다. 또 108배와 명상, 주상절리길 탐방, 경주 문화유산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성민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 송금계좌: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215,000원 / 285,000원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